

양현종에 멈춘 'KIA 스토브리그' 주말이 분수령

양현종 해결 후 다음 단계 준비
외부 거포 영입 작업도 속도
다카하시 일본으로 옮겨
외국인 선수 영입 작업도 박차

멈춰있는 KIA 타이거즈의 스토브리그가 다시 움직일까?

시작은 강렬했던 KIA의 스토브리그다. 11월 1일 윌리엄스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한 KIA는 대표 이사와 단장까지 동시에 교체하면서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다.

후속 조치로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젊은 리더를 전진 배치했고, 이어 현장과 실무 경험을 두루 갖춘 장정석 단장을 선임했다.

팀을 잘 아는 김종국 수석코치를 사령탑에 앉히고 3년의 시간을 선물한 KIA는 14일에는 코치진 개편까지 끝내면서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끝냈다.

실무진과 현장 스태프가 구성되면서 선수단 구성에도 속도가 붙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전력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FA와 외국인 선수에 대한 소식은 없다.

일단 주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KIA는 미국 도전을 마치고 돌아온 '양현종'과 팀 전력 보강의 최우선 과제인 '외부 거포'라는 목표에 맞춰 투 트랙으로 FA 시장에 뛰어 들었다.

팀을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해 온 양현종을 최우선으로 해서 외부 FA 영입을 위해 빠르고 과감하게 움직였다.

쉽지 않을 것 같은 외부 FA 작업이 지난 주말 급물살을 타면서 '거포 외야수' 영입 작업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였다. 이어 몇 차례 만남을 갖고, 조건

도 주고받았던 양현종 측과의 자리가 예정되면서 팬들은 기대감으로 14일을 기다렸다.

하지만 만남에서 KIA는 계약 소식을 전하지 못했고, 괜한 논란만 이어지고 있다.

협상 직후 양현종이 '서운함'을 언급하면서 팬들의 분위기가 엇갈리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보장액과 옵션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과열됐다.

결국 양현종 측이 바라는 '상징성'과 구단이 방점을 둔 '현실'의 괴리로 KIA의 FA는 일시 멈춤 상태가 됐고, 각종 야구 계사판은 며칠째 KIA 팬들의 성토장이 되고 있다.

'최대어 영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던 KIA지만 논란 속에도 여전히 양현종을 우선 순위로 놓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주말 분위기에 따라서 KIA의 시즌 준비 속도도 달라질 전망이다.

현실과 예상을 동시에 고려해 조건을 제시한 KIA는 양현종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로 고려해야 한다. 전력 빈틈을 채우기 위해 외부 FA 영입 작업도 중요한 만큼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팬들의 여론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주말을 기점으로 KIA의 FA시장 흐름이 달라질 전망이다.

외국인 선수 영입 작업도 진행 중이다.

프레스턴 터커를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한 KIA는 여전히 외야수 자원에 집중하고 있다.

투수 영입 리스트에는 변화가 있다. 후보군 중 한 명이었던 보 다카하시가 일본 세이부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게 됐다.

KIA는 다카하시를 보류선수 명단에는 올려놨지만 우선 옵션은 아니었다. KIA는 최소 두 명의 새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면서 변화의 시즌을 맞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15일(현지시간) 영국 브라이턴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7라운드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대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경기에서 울버햄프턴의 황희찬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교체 퇴장하고 있다.

다시 뛰려다 쓰러진 '황소' 황희찬

햄스트링 부상 ... '박싱데이' 앞둔 울버햄프턴 큰 악재

잉글랜드 프로축구 울버햄프턴 원더러스의 '황소' 황희찬(25)이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일찍 교체됐다.

울버햄프턴은 16일 열린 2021-2022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정규리그 17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브라이턴에 1-0으로 이겼다.

황희찬은 선발로 나섰지만, 햄스트링 부상으로 전반 16분 만에 아다마 트라오레와 교체됐다.

황희찬은 전반 5분 브라이턴 풀백 타리크 램프티와 경합하다가 쓰러진 뒤 오른쪽 햄스트링 부위에 고통을 호소했다.

황희찬은 다시 그라운드에 투입됐지만, 전반 10분 스프린트를 하다 또 햄스트링 부위를 부여잡았다.

벤치를 향해 교체 사인을 보낸 황희찬은 의료진 부축을 받으며 빠져나갔고, 대신 전반 16분 트라오레가 그라운드에 나섰다.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하는 데에는 통상 3주 이상이 걸린다.

이번 부상은 빠르게 팀 적응을 마치고 공격포인트를 쌓아가던 황희찬 자신과 '박싱데이'의 뻘뻘한 일정을 앞둔 울버햄프턴에 큰 악재다.

황희찬은 올 시즌 EPL에서 4골을 넣었다. 임대 이적 전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올린 공격포인트까지 더하면 시즌 4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한편 울버햄프턴은 전반 46분 터진 로망 사이스의 선제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연합뉴스

신태용 인도네시아, 박항서 베트남과 0-0 무승부

스즈키컵 조 1위 유지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과 신태용 인도네시아 감독이 동남아에서 가진 두 번째 맞대결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15일 싱가포르의 비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아세안축구연맹(AFF) 스즈키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두 팀 모두 2승 1무(승점 7)를 기록한 가운데, 골 득실에서 앞선 인도네시아(+6골)가 선두를 유지했고, 베트남은 2위에 자리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베트남(99위)이 인도네시아(166위)보다 순위가 많이 높고 실

제 전력도 강해, 이번 무승부는 신태용 감독이 사실상 전술적 승리를 거뒀다고 봐도 무방한 결과다.

박 감독과 신태용 감독이 동남아에서 지역대결을 펼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6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이뤄진 첫 맞대결에서는 베트남이 4-0 대승을 거둔 바 있다.

베트남은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는 말레이시아와 19일 오후 9시 30분 조별리그 최종 4차전을 치른다.

베트남은 전반전 일방적으로 상대 진영을 몰아쳤다.

공 점유율은 70.7%를 찍었고 코너킥 횟수에서는 5-0, 슈팅 수에서는 9-1로 앞섰다. 하지만 공격수들이 인도네시아의 거친 두 줄 수비를 효과적으

로 공략해내지 못하면서 유효슈팅은 단 1개만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수비에 치중하면서도 K리그인산 그리너스에서 뛰는 오른쪽 윙백 아스나위를 앞세워 간간히 공격을 시도했지만 좀처럼 하프라인을 넘지 못했다.

전반전 소득을 올리지 못한 박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응우옌 쩡 푸영 대신 공중볼 처리에 능한 응우옌 피엔 린을 최전방 공격수로 투입했다.

박 감독은 계속 공격적으로 교체 카드를 썼지만, 기대했던 골은 터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선수들은 몸을 던지는 수비로 베트남의 강공을 막아냈다.

한편, 이 경기에는 한국인 심판진이 배정돼 기술지역에서 자연스럽게 한국말이 오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연합뉴스

“스무 살에 어울리는 패기와 열정의 팀 기대하세요”

김은중 U-20 축구팀 감독

“스무 살에 어울리는 패기와 열정의 팀 기대해주세요!”

한국 남자 U-20(20세 이하) 축구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김은중 감독이 16일 대한축구협회를 통해 포부를 밝혔다.

2014년 은퇴 뒤 지도자 코스를 밟아온 김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연령별 대표팀에 오래 몸담은 터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17년부터는 U-23 대표팀 코치로 활동해왔다.

김 감독은 “U-20 감독은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자리 중 하나”라면서 “선수 육성과 함께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한 연령대여서 여러 방면으로 준비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선수들과 신뢰 관계 속에서 소통하는 감독이 되겠다”면서 “스무 살 나이에 어울리는 패기 넘치고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를 넘어 세계 축구 트렌드에 맞는 능동적인 축구, 세계 무대에서 통할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청소년 선수 육성에 대한 자신의 철학도 내비쳤다.

김 감독은 “운동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해야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선수

들이 따르도록 하겠다. 나라를 대표하는 만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이 나이에 보여줄 수 있는 패기와 도전 정신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지도자 수업을 벨기에에서 시작했다. 은퇴 직후 2015년 벨기에 투비지에서 코치를 맡았다.

김 감독은 세계 축구 조류를 이끄는 벨기에 축구에 대한 관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지금 밟고 있는 P급 지도자 교육 과정에서 벨기에 축구의 유소년 육성 방법에 대해 발표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많은 국제경기를 치르는 게 벨기에라는 작은 나라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원동력”이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선수 성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해 U-20 연령대 선수들이 국제대회 경험이 적은 것은 우리 팀의 숙제”라면서 “축구협회와 잘 상의해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은 경기를 치르고 싶다”고 말했다.

“김은중호” U-20 대표팀은 내년 열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 예선에 출전해 본선 진출에 도전한다.

김 감독은 “U-20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선수들의 성장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연합뉴스



김은중 감독